

내성적(內省的)건축
Introspective Architecture

신재익/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hin Jai-Eok



갈평과 루도비코 신부님

갈평 피정(避靜)의 집은 도시에서 제법 떨어진 산골에 위치하여, 도시의 혼잡과 먼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갈평은 경주와 포항의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한다. 경주쪽에서 접근하자면 경주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중의 하나인 경주시에서 감포로 넘어가는 4번 국도를 따라 산을 넘어가서, 다시 기림사쪽으로 꺾어져 포항으로 넘어가는 산길인 929번 지방도를 따라 노루목을 넘어 내려가다 보면, 넓다란 저수지 진전담을 만나게 되고, 이를 돌아가면 오른쪽에 만난다. 피정의 집 밑으로 예전의 성당 등 몇 개의 작은 집들이 남아있고, 건물 뒤로는 바로 갈참나무, 소나무가 우거진 산으로 연결된다. 프랑스 태생의 남 루도비코 신부(루이 데랑드 1895-1966)는 1923년 우리 나라에 입국하였고, 처음에는 부산 범일동에서 활동하다 1934년 영천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한다. 그가 1935년 영천에서 몇몇 마을 처녀들을 모아 창설한 예수성심시녀회는 이제 5백여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대구에 본부를 두고, 영남 일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피정의 집이 들어선 주변 일대는 루도비코 신부가 사회봉사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써, 은퇴한 후에도 거주하던 건물이 남아있기도 하다(신축건을 옆에 일제시대에 지어진 자그마한 사제관이 남아있으며, 루도비코 신부가 사용하던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건축가 강석원과 그의 작품

건축가 강석원은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원로 건축가로서, 최근까지('96. 2 ~ '98. 2)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그는 대학을 마친 후 청년기의 중요한 10여년을 프랑스에서 건축활동을 한, 우리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로서, 1978년 귀국한 이후 다작은 아니지만, 주택을 비롯하여 대학 건물, 사무실, 천주교 성당, 수도원, 해외 공관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다.

그의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면, 기념비성이 뛰어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82), 매싱과 평면에

서 기하학적 구성과 합리적인 성향을 보여준 그룹 가 사옥('86), 세련된 일면 처리와 조형성을 보이는 에스모드 빌딩('89), 과감한 조소적인 성향의 천주교 남천교회('91)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일견 평범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단정하고 엄격한 매스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외관도 현란하지 않은,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작품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한 그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말을 빌자면, 건강한 건축¹⁾, 혹은 정확한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혹은 정확한 건축은 형태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야기하는 '좋은 건축'은 철저한 자기 제어의 과정을 거쳐 남은 정제된 것이다. 그는 스스로 건축이 얼마나 건강해 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 건축적 관심사²⁾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해 그는 명확한 조건의 해석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지적하였다. 그는 하자를 최소화하는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기 사옥에 대해서도 외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³⁾.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축가의 책임은 단순히 건축주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혹은 윤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즉 사회를 이끌어내야 하는 존재로 건축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건축가의 책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평 피정(避靜)의 집

이 집은 완만한 경사지를 수평으로 고른 다음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주변은 준농림지구로 한적한, 전형적인

1) 건축가 강석원, 한국의 현대건축가론/9, "공간" 지, 87. 10. p.93, 박길용과의 대담.
2) 앞글, p.94.
3) 작품노트/강석원, '정형성에서의 표현', "공간" 지, 86. 4. pp. 89, 그룹 가 사옥에 대한 박길용과의 대담.

산골 마을이다. 인접한 필지들도 수녀회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거나 여러 개의 필지 중 아마도 대지로 구획된 부분만 이용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지구획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배치는 배치도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 배치도에서의 배치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여유가 별로 없도록 교묘하게 건물이 끼워 들어가 있다. 전체 구성은 타원형의 중정을 가운데에 두고 건물이 둘러싸고 있다. 배치평면은 타원의 윗부분에 삼각형을 끼운 형태로 되어 있다. 건물은 기능에 따라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동이 피정하러 모인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5층의 건물이며, 남쪽동은 공용시설동으로 1층에는 사무실과 식당, 2층에는 수녀원, 3층에 성당과 소강당, 그리고 회의실들을 두어 기능적으로 숙소들과 연결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피정의 집은 '피정을 위한 집'을 말하며 피정의 사전적인 의미⁴⁾는 "避騷靜念" 혹은 "避世靜修"의 줄임말로, 풀이하자면 소란함(혹은 세상)을 피하여(避) 조용히(靜) 묵상(혹은 자신을 닮음)에 잠긴다는 뜻이다. 평상시의 생활에서 물러나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세기까지는 수도자나 은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평신도에게까지도 확산되어,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대상 집단이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경우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주로 예수성심수녀회의 5백여 수녀들이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정통적인(?) 피정의 집이다. 안해준 수녀의 말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은만 8일씩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는 기회를 갖는데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한다. 구도자들도 자주 자기 욕심이 생겨나 이러한 수도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건물의 주용도는 한 번에 70여명씩, 이 수녀회의 수녀들이 모여서, 기도 및 집회를 통해 일종의 재교육을 받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도 그 동안 수녀회에서 개미처럼 모은 저축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전체적인 건물의 구성을 숙소동과 공용시설동으로 나누었는데, 중정을 사이에 두고 묶은 것은 건축가의 피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건축가의 건물에 대한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이 건물에서의 중정은 건축을 하나의 완결체로 만들어 준다. 구도자들의 생활이 속세에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장소가 산간벽지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축물도 마치 성처럼 닫혀 있어서 바깥과는 단절되도록 할 수 있다. 숙소동의 각 방은 남향을 하고 있어서 창을 통해 보이는 것은 중정과 건너편 공용시설동이다. 그만큼 외부와는 단절되는 셈이다.⁵⁾ 다시 말하자면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외부와 떨어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용시

설동과 함께 어울려 같이 숙박한 그룹이 공동의 생활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이 건축물은 공동체의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가 강석원은 지속적으로 중정을 이용한 건축을 지어왔다. 성지원('87), 천주교 대전교구청('91), 스페인 한국대사관('96) 등의 건물에서 중정은 전체 건물의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의 사옥이나 에스모드 빌딩도 넓게 보면 중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잡한 골목길에서부터 벗어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에스모드 빌딩이건,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도 새로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 이 건물이건, 외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축관은 어쩌면 이제는 구태의연한 근대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에서 지향하는 바는, 모던이든 포스트 모던이든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이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건축을 통해 자기가 살 세상을 창조해 왔다. 이 인공의 세상은 각 시대마다의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의 보편적인 특징이 된다.

작가가 이 건물에서 주변, 혹은 바깥으로부터 독립된 중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가 구성되도록 한 것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건축을 인식하고, 그것 자체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껏 건축가 강석원이 추구해 온 정체성은 결코 현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는 쉬운 형태, 혹은 간결한 형태를 통해 자신의 '건강한 건축'을 이루어 왔다. 이 건물에서도 이러한 건강성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정이 덧붙여져서, 바깥으로는 닫히고 안으로는 열린 내성적(內省的)인 건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축형태상의 내향성은 피정의 집이라는 건물의 프로그램과 어울려 전체 건물의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우리는 오늘날 IMF시대를 맞아 거품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힘을 다하고 있다. 건축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겠다. 그리고 많은 반성과 회한에 빠지게 한다. 건축계도 그동안 지나친 거품을 누려왔던 것인가? 이제 막 건축에서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질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생겨나 본격적으로 건축을 꽃 피울 수 있는 시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련을 맞은 게 아닌가? 그러나 과거의 반성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잘잘못만을 따질 때는 아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건축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다른

4) 박도식 엮음, 가톨릭교리사전, 카톨릭출판사, 1992

5) 이에 비해 공용시설동은 개구부들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성당에서 제단 뒷벽을 유리창으로 한 것은 그러한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해준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성당은 아마도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건축적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것이다.

분야와 마찬가지로 IMF가 건축계에 준 교훈은 지극히 명료하다. 그것은 건축가의 지나친 작위나 과장된 몸짓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건축, 진솔한 건축의 요청이라 하겠다.

아마도 IMF시대 이전에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물도 몇 가지의 문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느낀 점은,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 및 대지조건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긴 하겠으나, 피정의 집으로써는 건물의 규모나 높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휴양지의 깨끗한 호텔에 온 느낌이 드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에 문혀 피정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욱 종교적인 내면성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아쉬운 점을 한가지 지적하자면 건축가의 의도와는 달리 중정이 바뀌어 버린 점이다. 애초의 의도는 비워진 공간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방문해 보니 분수가 설치되는 등 수녀회에서 바꾸고 있는 중이었다. 흔히 벌어지는 경우이겠으나, 건축물이 완성되면서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부의 가구들이 건축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배치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공간의 꾸밈 혹은 조경의 변경에 의해 건축가의 의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건물의 중정은 수도원의 클로이스터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침묵과 정결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 그렇게 완성되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

Kalpyung and Father Ludvico

The house of retreat in Kalpyung, somewhere in between Kyungju and Pohang, is located quite far from the city, in a rural region free from the disorders and contamination of urban environments. Beneath the newly constructed house are little houses that include the old church, and behind it is the mountain with white oaks and pine trees. French-born Father Ludvico(Louis Derande: 1895-1966) has arrived in this country in 1923, and after serving missionary duties in Pusan, moved to the Yongchun area in 1934. The next year, he has gathered young women from the region's villages and formed the Jesus Sacred Heart Convent, which now has a member reaching 500 people and, with its headquarter in Taegu, participates in various activities in Ilwon, Yongnam Province. The site of the house of retreat is from where Father Ludvico had performed his social services. Later, after retirement, he had lived in a small hut within this area, which is still there to this day. (Beside the newly built house, a small house for priests, construc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mains, where we can see the traces that the Father had left.)

Architect Kang Suk-won and his works

Kang Suk-won, who has just turned 60, is one of the senior architects of Korea, and has until recently, as the head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been in charge of various architectural activities. After graduation from the university, he took an unusual path, spending 10 years of his youth in France. In returning to Korea in 1978, he has designed a number of architecture works, though not abundant in quantity, such as university buildings, offices, churches, monasteries and diplomatic residences. His well known works include the monumental Korean-American Amity 100th Anniversary Tower(82), the geometrically composed Group Ga Building(86), the S-Mode Building(89) that

manifests a refined sense of formal construction, and the Roman Catholic Namchun Church(91) with strong sculptural features. Since his works enclose rationally developed interior spaces with precise and neat mass composition, they may seem to be rather ordinary. The geometrically controlled elevations also defeat any flashy touches. Thes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bviously can be traced back to his own architectural way of thought.

His works, in the architect's own words, seeks "a healthy, or precise, architectur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simplified and economized approach to architectural forms. A good work of architecture, according to Kang, should be a pure product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where the architect maintains total self-control. His main concern for architecture is to what degree can a work of architecture be healthful. To this, he has suggested a crisp analysis of conditions and a solution on technical problems. He even mentioned a method to minimize the defects of a building.

These thoughts seem to be rooted on the acknowledgement of the architect's social responsibility; He has even talked about the external responsibility on the building for his own firm. Hence his idea of responsibility is not confined to the economical or ethical issues from the client's view, but more concerned with the society as a whole, where the architect is conceived as a catalyst for social developments.

Kalpyung House of Retreat

This building was placed on a flattened site, which was previously sloped, facing south. It is surrounded by fields and mountains, a typical rural landscape. The neighboring lands also seemed to belong to the Convent, but only fractions were being used for buildings. The borders of lots were very irregular, which explained the unconstrained,

free arrangement of buildings felt during the visit. This was totally unexpected from the speculation on the drawings of the layout, which displayed a tight placement of building within the site. The overall plan consists of buildings surrounding an oval-shaped court, where a triangular mass penetrates the upper part of the oval. The buildings are separated in two parts along their functions: on the north stands a 5-story-lodging facility for the visitors, and on the south a building for multi-purpose general uses. The first floor of this building has the office and cafeteria, the second floor the nunnery, and on the third floor the chapel, small auditorium and the conference room, functionally linked to the lodging building.

The house of retreat is literally the house for retreat, an act of tranquil self meditation. To retreat, one must first get away from the busy everyday life, and seek the messages of God. Until the 14th century, this was confined to the religious monks and hermits, but nowadays general believers also participate in this act. Details in the retreat may vary among religious groups, and so does the architecture that holds them: according to one nun, this Convent makes it a rule to have a chance to meet God closely for 8 days every year. Without these occasions, one can get tempted by the greeds of everyday life. Hence the main function of this work is to hold 70 people at once, where the nuns of the Convent come together and go through a retraining program. The budget for the construction of this facility was the sum of savings from the Convent's members.

The division of the whole into buildings for lodging and general use, and connecting them through a middle court can be based on the architect's interpretation on retreat, but also his concept of a building. Here, it is this court that integrates the architectural elements into one whole. To shelter the nuns from the outside world, it is not enough to simply locate this building in a rural area: the architecture should also be closed to the outside, like a castle. The rooms of the lodging building are facing south, where the windows are open to the court and the other building, and nothing else. During the staying in this facility, one is disconnected from the outside world, instead forming intimate group within. The architecture seeks an ideal state of communal life.

Architect Kang has steadily used the court in his works. Sungjiwon(87), Roman Catholic Taejon Parish Church(91), and the Spanish Embassy(96) take up the court as an important integrating element. The office building for Group Ga and S-Mode can also be viewed as hybrid examples. Whether it is the S-Mode building securing its own space within a complex urban fabric, or this Convent building

establishing its own space within the grand nature, the idea of constructing one ideal space, independent from the neighboring context may seem a little bit out of date. But what we basically ask of architecture cannot be so conditioned to all those -isms such as Modernism or Post-Modernism. That we build our living environment through architecture has not been changed through history, and this artificial world that we created is the result of reason depending on the era. They become a general feature of architecture.

That this work is centering on a court, disengaged from the outside, using this to construct the wholeness is in coherence with the architect's idea of architecture, which is an independent entity, having its own identity. This value, in Kang's works, is not achieved through incomprehensible methods: easily recognized, simple forms build the bridge to his idea of a healthy architecture. In this recent work, this aspect is further developed by the addition of the court, which is closed to the outside and open to the inside, to an introspective architecture, that cannot be more appropriate to its function as a house of retreat.

The Remaining Stories

This country under the IMF aid is now striving to get rid of all the bubbles that contaminated this society. The same can be sai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The situation has a double-sided connotation: although it is right to burst the bubble, it was also an age when we could finally think of the quality, not quantity, of architecture. Now we should focus on not the defects of the past but on what sort of architecture should we seek in the future. The precept of this financial crisis is apparent: What we need is a healthy, decent architecture, deleting the overstatements and artificiality of the architect.

This work, designed before this crisis period, also shows traces of these flaws. The first impression was, although it might have been the result of the client's program requests and the site condition, the overall project was too grand on its scale. As a space for retreat, it wouldn't always be so beneficial to have the atmosphere of a high class hotel. Having a space of meditation in nature would have been much more suitable. Another point that was rather disappointing is that the court had not been built as initially intended. It was conceived as an empty space, but when I visited the place they were building a fountain in it. Modification of the client on a finished architecture is a common phenomena: Interior layout of furnitures often ends up quite different from the idea of the architect, and in outdoor spaces landscape may alter due to the gardening of its users. The Conven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with a silent and void court.